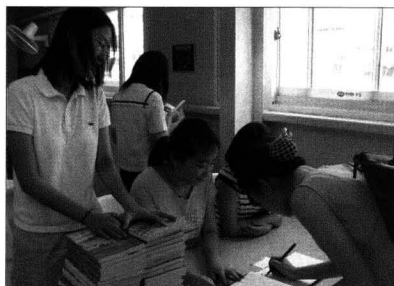


# 교실 밖에서 찾은 ‘역사탐구 결과물’ 에 세대 초월한 감동



중경고등학교 역사탐구반 지음 | 역사넷 | 246쪽 | 값 8,000원

지난 8월 8일 서울 동부이촌동의 중경고등학교 학생식당에서는 보기 드문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고등학생들과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이 함께 만든 《10대들의 역사 리포트》의 출판기념회에 맞춰 약 20명의 중경고등학교 역사탐구반 학생들과 이들을 인솔한 박중현(역사과) 교사 그리고 태평양 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자리가 빛난 것은 고등학생들의 이색적인 역사탐구가 책으로 결실을 맺었기 때문. 중경고등학교 이경복 교장과 태평양전쟁 피해보상추진위원회 이희자 씨를 비롯한 어른들은 “정부와 어른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학생들이 앞장섰다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숙이게 된다”며 정부와 역사학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누구보다도 책 출간을 기뻐한 독자는 태평양 전쟁 피해자였다. 학생들의 인터뷰에 응했던 이상엽 할아버지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대신 해주어 고맙다. 한풀이를 해줘서 이제는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중경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탐구반을 조직한 것은 지난 2001년 3월이었다. 모인 학생들은 모두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에 익숙한 평범한 10대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2,3년에 걸쳐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일본에 대한 막연한 신비감을 벗어나 비정한 역사를 만나게 된다. 인터뷰에는 전쟁 당시 오른쪽 눈을 다치고, 손에 부상을 입은 채 네 개의 손가락만으로 살아온 강부중 할아버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유복례 할머니 등 역사의 그늘에 갇힌 딱한 사연의 전쟁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고 영킨 역사의 매듭을 풀어보려고 야무진 노력들을 해나가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

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사동에서 왜곡 역사 교과서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현재 고교 3학년으로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규모임인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그리고 방과후 시간과 방학을 활용해 전쟁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났다. 반장인 서유리 학생은 “우리가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부분 매체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이나 진전이 없으니 저희를 보면서도 화를 내셨죠. 그분들 마음을 돌리기가 가장 힘들었어요”라며 취재에 나섰다가 허탕 치고 돌아왔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태평양 전쟁 당시 남편을 잃었지만 아직도 남편이 살아 있다는 희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어머니를 떠올리던 홍승균 씨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끌려가셨다”며 눈물을 머금고 책의 발간을 축하했다. 이날 학생들을 지도했던 박중현 교사는 책상 앞에 앉아 내신, 수능만을 준비한 아이들보다는 이 학생들이 더 값진 것을 배웠을 거라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부형들에게 공을 돌렸다. 역사탐구반 학생들의 책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대목은 “일본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과거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되 현재의 위치에서 일본에 대해 여유 있고 중립적인 태도를 갖자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다. 이날 출간기념회 참석자들은 이처럼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역사적 태도를 제시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높이 샀다. 이날 출간기념회는 대안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또 하나의 수확이었다. **한민**

김청연 기자